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27년 전의 활극

1978년 9월, 경희대 교련반대 시위

2, 3일 후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홍원으로부터 학교에서 제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작 학교에서는 아무런 통지나 설명도 없었다. 전해들은 사유는 근신 중에 시위기담으로 긴급조치를 재차 위반하여 가중징계되었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죄의식에서 벗어난 것 같기도 했고, 나의 앞길이 확연하게 정리되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알 수 없이 불안한 4월의 공기도 원래의 따뜻한 봄날로 되돌아가 있었다.

이후 나는 학교보다는 교회 대학생부 활동과 기독교청년운동에 전념하는 한편, 학교 쪽에서는 몇몇 77학번 후배들을 모아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당시 기독교계는 매주 목요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78년 내가 서울기장청년연합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중정에서 더러운 마수를 뺏쳐왔다. 협력해주면 복학과 장학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공직이었던 아버지의 직장을 박탈할 뿐 아니라 당시 무허가 건물이었던 집마저 공유지 점용허가를 취소하여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협력하지 않으면 온 가족의 생계를 말살해버리겠다는 협박이었다.

당시 7남매의 생계와 교육이 아버지의 교직에 달려있었고, 전 재산인 집을 빼앗기면 우리 식구는 오갈 데가 없는 신세였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집요하게 강요하는 품이 단순한 엄포 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 나는 몇몇 선배와 상의하여 가족들과 연락도 끊고 몇 달 간 피해 있을 요량으로 제주도로 잠적하였다. 거기에서 약 3개월 쯤 지내다가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군에 입대하였다. 훈련소에서 또다시 보안사로 끌려갔는데 보니 김홍원이 와 있었다. 그는 집요하게 학내 사건에 대한 취조를 해냈지만 오히려 군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군생활 중에 10.26 사건이 나서 세상이 바뀌었으며 학교도 복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의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의 시대는 그렇게 끝난 것이다.



하석태\_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76학번. 토일·토익 대학강사, 정일학원 원장,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목동영어학원 원장(현)  
신명식\_ 경희대 사학과 76학번. 내일신문 편집위원(현)

거사 직전! 정경대 5층 구석에서 서 있던 한 청년은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밤을 떠올린다. 지난 몇시간 동안의 터질 듯한 긴장 때문인가, 어젯밤 잉크 냄새가 코를 찌르던 동료의 자취방 풍경이 왠지 몇 년 전처럼 아득하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본다. 학내 곳곳에 여전히 경찰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지만 아직은 특별히 이상한 조짐은 없다. 강요된 침묵! 그리고 조작된 질서! 그러나 이제는 반란의 시간이 왔다. 마치 방아쇠를 당기듯 청년의 손끝이 천천히 비상벨 위에 얹힌다.

갑자기 건물 전체가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오는 교수와 학생들의 눈앞에 연기처럼 유인물이 솟구친다.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한걸음에 1층으로 내달리던 청년의 눈에 역시 유인물로 뒤덮인 문리대가 보인다. 그곳에 지금 똑같은 ‘뀨’ 을 치고 있는 그의 동료가 있을 터였다.

같은 시간 대운동장. 불암산 행 행군을 격려하던 조아무개 총장의 등 뒤 의약품 옥상에서 ‘유신철폐’ 현수막이 선언처럼 내걸린다. 이와 동시에 대열 맨 오른쪽에서 한 청년이 총을 내던지고 외마디 구호를 외치며 달려나간다. 순식간에 그를 에워싸는 교직원과 경찰들, 그리

고 술렁이는 군사훈련장. 악다구니를 쓰며 끌려가던 그 청년의 눈에도 지난 밤의 자취방 풍경이 아득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다. 학교 안에서 집회는커녕 변변한 토론 모임 하나 마음놓고 할 수 없었던,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서면 누가 학생인지 누가 경찰인지도 알 수 없었던 유신시대의 이야기. 그러나 1978년의 학원에서 옳은 말 한마디 내뱉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이런 활극을 벌여야 했고,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V드라마 ‘모래시계’ 처럼 탄탄한 각본이 있어야 했다.

당시 상황에서 활극에 참여하는 것은 곧 제적과 수배, 혹은 구속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렇게 비장하게 준비한 거사도 각본대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앞서 말한 세 명의 주연 중에서 탈출에 성공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더 진행시켜 보자.

정경대 앞 잔디밭에서 필사적으로 유신철폐와 민주주의를 선동하던 청년 신명식(사학 76. 당시 3학년)은 잠시 후 구원병 없는 전투를 포기하고 퇴각을 결정하다. 몇 걸음 뒤에는 직원과 경찰들이 “저 놈 잡아라”를 외치며 달려오고, 그의 눈앞엔 키보다 높은 담장이 퇴로를 막고 있었다. ‘학우여! 무엇이 두려우랴, 월장하여라.’ 잠시 후 그는 담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재’ 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보이고는 유유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날 밤, 아예 서울시 경찰의 관할을 피해 멀리 동인천 자유공원에 아지트를 튼 그와 문리대의 전사 하석태(영문 76)는 며칠 후 야음을 틈타 다시 학교에 잠입한다. 잡혀간 후배 신용남이(사학 77)의 뭇까지 싸워 주리라. 오늘의 목표는 문리대 강의실이다. 비교적 한국실정에 어두운 영문과의 외국인 교수가 그들의 리스트에 올랐다.

신명식이 점잖게 강의실 문을 두드린다. 교수님, 급한 전화가 왔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 턱이 없는 교수가 ‘땡큐’를 연발하며 사라진 사이, 그는 교단에 서서 격양된 목소리로 다시 독재타도와 유신철폐를 목놓아 외쳤다. 그러나 멀뚱거리는 학우들 그의 표정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스치는 순간, 마침내 몇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선다. 자, 우리도 나갑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교수가 모든 사태를 파악하고 강의실로 달려온 뒤였다.

“헬로!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

그들의 1차 잠입은 몸집에 비해 예상 외로 동작이 빠른 교수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할 수 없이 문리대 앞에서 청중도 별로 없이 짧은 연설을 하고 철수한 이들 유신시대의 첩혈쌍용은 며칠 후 다시 2차 잠입을 시도한다. 통금에 맞춰 회기동에 도착한 이들의 은신처는 경희고등학교 옆 전씨 시조묘. 80년 이후엔 한때 삼엄한 경비구역이었지만 당시엔 그럴 일이 전혀 없었다. 아직은 전씨 성을 가진 나라님이 등극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2차 잠입 때의 작전은 ‘음성’이 아닌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대형 페인트 한 통을 사 들고 학교에 들어선 이들은 눈에 띄는 평평한 장소마다 평소엔 못했던 말들을 여한없이 써 넣기 시작한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날 밤 학내엔 이들을 잡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잡새들이 잠복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엑스트라 100명이 주인공 1명을 못 잡는다는 동서고금(할리우드와 충무로)의 진리대로 이들은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준비한 페인트를 다 쓰고서야 학교를 떠났다.

며칠 후 이들은 가을 축제의 북적거림을 이용해 세 번째로 학교에 스며들었다. 임간교실에서 진행되는 탈출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모처럼 많은 대중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건 치고 장렬히 산화하자’ 이것이 그들의 작전이었다. 하지만 본관 근처에서 끝날 시간을 기다리던 그들의 귀에 갑자기 때아닌 팽과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앗, 이게 웬일이냐! 허겁지겁 달려간 임간교실엔 이미 잔치는 끝나고 꿈에 그리던 대중들은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이 역시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시간착오는 매년 해오던 두 시간짜리 ‘송파 산대놀이’가 하필 그 해에 30분쯤 짧은 ‘하회 별신굿’으로 바뀐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잔치가 끝났으니 이제 어쩔 것인가. 결국 이들은 인적없는 쓸렁한 임간교실에서 마지막 꺾을 치고, 뒤늦게 달려온 무수한 엑스트라들에게 잡히고 만다. 9월에 시작한 이들의 활극이 한 달여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집회를 하기 며칠 전부터 총학생회 산하 각 단위에서 결의를 하고 미리부터 대자보와 집회 공고를 붙이고, 유인물은 컴퓨터로 쳐서 인쇄소에 맡기는 요즘 후배들은 이 20여 년 전의 활극에 대한 감상이 어떨까? 어쩌면 역시 선배들 세대엔 대중투쟁의 개념이 부족했다고 그제 한계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옛날의 선배들이 요즘 아이들 너무 편하게 운동한다고 말하는 게 무의미하듯,

후배들이 지금의 상황에 빗대어 과거를 판단하는 것도 온당한 평가는 아니다.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말해주듯이, 긴급조치 이후 학원지울화가 실시된 84년까지 이 땅의 학원은 곧 전쟁터였던 것이다.

단 몇 분이라도 더 외치기 위해 밧줄을 몸에 묶고 건물에 매달려야 했던 시절, 강의실 안팎에 도사린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종일토록 긴장을 멈출 수 없었던 시절, 옥상에서 뿌린 유인물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어디선가 달려온 경찰들이 그 대부분을 공중에서 나꿔채던 시절, 그리고 어렵사리 짚던 스크럼이 깨지면 좀 전까지 함께 어깨를 걸었던 사람이 내 팔을 꺾어 연행하던 시절. 그 참혹한 시절을 몸으로 헤쳐온 선배들의 '비대중적 활극'이 없었다면 80년대 이후 경희운동의 비약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날의 활극이 있는지 2년 후, 80년 서울의 봄을 맞아 팔뚝을 걷어부친 경희의 용사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그들의 일어섬은 한결같이 2년 전 학교를 뒤흔들어 놓았던 선배들의 외로운 투쟁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역사는 제 몸뚱이에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겨 놓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당시의 색채와 음향을 제거한 채, 그저 흑백의 무성영화를 보듯 무감동하게 그것을 읽는다. 그러나 그날의 활극을 당시의 빛깔과 목소리로 되살려 보라. 국방색 학원 핏빛 함성, 뿌연 새벽빛, 함성소리, 그리고 군화발 소리... 그것은 더이상 소수의 활극이 아닌 생생한 저항의 역사로 되살아올 것이다.

밤새도록 '가리방'의 필경을 굶어 만들어낸 갱지로 된 유인물. 거사를 알리는 비상벨 소리. 연단도 마이크도 대중도 없던, 그러나 분노만은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절의 세 청년의 무용담. 그때를 아십니까?



고려대 경제학과 76학번,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엄주웅\_스카이라이프 마케팅본부장(현)

우리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다. 아파트 14층에선가 떨어지셨는데 나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못했다. 노동운동한답시고 모 방송사 노조의 행사 뒤풀이에서 술 시합하듯 음주에 골몰하던 때였다.

의식이 인사불성의 경계에 이르렀을 즈음 여동생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마신 술을 삭이지 못해 연신 구토를 해대고 있었다. 우리 가족들은 눈물 범벅이 된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둘째 아들 놈이 술 냄새와 함께 문간에 와서 엎어지는 것을 보아야 했다.

3일장 내내 나는 병어리였다. 문상객들이 우리 어머니 고생을 운운할 때마다 주눅이 들었다. 여기 저기 모여 떠드는 손님들이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다. 안쓰러웠던지 누군가 말을 던졌다. “너 너무 그러지 마라, 너희 어머니 돌아가신 게 전부 네 탓인 것처럼...” 내겐 그 말이 거꾸로 들렸다.

그 말처럼 4남 1녀 우리 형제들의 딱 5분의 1만큼만 죄가 있었으면 싶었다. 나보다 더 오래 어머니와 함께 산 “경상도 마초” 아버님이 어머니 우울증에 더 기여했기를 바랐다. 하지만